

치 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불교미술협회에서 ‘인연 짓기’라는 주제로 19번째 회원전을 열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국대학교에 불교미술학과가 개설된 지난 39년 동안 다재다능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한국불교미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불교미술협회 회원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불교예술가의 본분에서 신심과 정열을 다 바쳐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은 지난 1700여년의 역사 속에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독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양하게 재창조하였습니다. 불교미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과 신앙의 두 본질과 한반도로 응축된 다양한 예술사조들이 어우러진 역사성 덕분에 우리나라 불교미술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잇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출품작들은 단순한 예술적 행위를 넘어서 구도자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피나는 노력과 내적 고통을 겪고서 세상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미술협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안목이 미래 불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예지에 찬 빛과 자애로운 향기가 소리 없는 법음이 되어 온 법계도량에 가득합니다. 이 빛의 향기가 더욱 간절한 울림이 되어 이르는 곳곳마다 일시에 어둠이 걷히고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행복해 지기를 발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며, 항상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